■민족문화연구 제107호(2025.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49-276.
http://doi.org/10.17948/kcs.2025..107.249

손창섭 초기 단편에 나타난 타자성과 「잉여인간」의 윤리적 공동체

김상혁(金祥赫)*

목 차

1. 들어가며
2. 초기 단편에 나타난 타자의 '얼굴'과 지연된 윤리
3. 「잉여인간」 속 환대의 공동체와 에로스적 욕망
4. 나가며—얼굴 없는 주체로서의 만기

국문초록

한국전쟁이 와해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손창섭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재구성에 관한 상상력은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에 수용될 타자 혹은 타자성에 대한 소설적 대응과 맞물려 있다. 본고는 손창섭 초기 단편에 나타난 타자성을 살피고 「잉여인간」 속 '만기 치과 의원'을 그러한 타자의 타자성을 수용하는 윤리적 공간으로 해명하려 한다.

「비 오는 날」 「생활적」을 포함한 초기 단편들에서 타자성은 '얼굴'로 형상화된다. 이때 빈자와 고아, 불구로서의 저 낯선 얼굴에 대한 소설적 주체의 반응은 실패 혹은 지연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때까지 손창섭의 소설적 상상력은 타자성을 사유하면서도, 한국전쟁의 참상이라는 현실 논리에 구속된 채 공동체 구성을 위한 환대의 논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잉여인간」 속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동체는 타자의 타자성을 전적

* 서울사이버대 강사.

으로 수용·환대하는 윤리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현실의 논리를 벗어나 있는 윤리적 공간이 소설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서만기'라는 이상적 인물이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만기는 익준, 봉우를 조건 없이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이자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에로스적 욕망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낭만화된 대상이다. 현실 논리에서 벗어난 윤리적 공동체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잉여인간」은 이상화된 인물 만기를 만기 치과 의원의 구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잉여인간」에 나타난 환대 및 애도와 같은 윤리적 행위가 전적으로 만기라는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바 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윤리적 실천은, 결국 만기라는 '개인-주체'가 아닌, 만기와 만기의 아내, 은주, 인숙 그리고 봉우까지를 포함한 '공동체-주체'에 의하여 관철된다.

본고가 손창섭 소설의 타자성과 윤리적 공동체를 해명하는 데 적용한 '얼굴' '타자성' '환대' '에로스' 등은 레비나스의 철학 개념이다. 손창섭의 단편들은 전후(戰後)의 특정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타자와 공동체에 관한 사유는 어느 한 시기에 한정된 문제일 수 없다. 레비나스적인 윤리 철학의 개념들을 경유하여 손창섭 소설의 윤리성을 살피고 특히 「잉여인간」과 만기라는 캐릭터가 지닌 미학적 한계와 의의를 살피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주제어: 손창섭, 잉여인간, 레비나스, 타자성, 공동체, 환대

1. 들어가며

1950년대 손창섭의 단편들은 한국전쟁 직후 피난지에서의 궁핍한 삶을 배경으로 한다. '허무' '절망' '결핍' 등은 손창섭 소설[1]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요약하는 단어이자 전후(戰後) 한국의 현실과 정서를 해명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등단 작가로 활동하기 전인 1949년 『연합신문』 독자투고란에 실린 「얄구진 비」를 제외하면, 그는 「공휴일」(1952)을 시작으로 1950년대에만 총 서른 편 가량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2] 이처럼 작가가 지닌 한국전쟁

1) 본고는 『손창섭 단편 전집 1』과 『손창섭 단편 전집 2』(가람기획, 2005)를 연구 및 인용의 기초 자료로 삼는다. 이후 본문 인용은 해당 쪽수만 표기한다. 「잉여인간」을 제외한 여타 작품은 『전집 1』에서, 「잉여인간」은 『전집 2』에서 인용한다.

2) 이외 근래 발굴된 단편으로 「애정의 진리」 「애정무효」 「잊을 수 없는 과거」 등이 존재한다. 이

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창작된 단편들을 그의 초기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장편화 경향의 시발점인 『낙서족』과 자전소설 형식을 띤 「신희 희작」(1961)을 포함한 1960년대 소설들은 손창섭의 후기작에 포함된다. 물론 이와 같은 시기구분은 단순히 단편에서 장편으로의 형식 변화만을 준거로 삼은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손창섭의 작품세계의 내용 및 서사구조를 살핌으로써 다양한 변별점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손창섭의 작가적 노정의 변곡점을 살피는 과정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된 작품이 「잉여인간」(1958)이다.[3)]

손창섭의 초기단편의 성격과 비교하면 1958년 『사상계』에 실린 「잉여인간」은 이례적인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으로 1959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소설적 성취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후 「잉여인간」이 줄곧 손창섭의 대표작으로 회자된 사실과는 별개로 이 작품은

들은 형식상 단편이라는 점에서 1950년대 손창섭 소설과 연관되고, 결혼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전면화한다는 점에서는 1960년대 손창섭 소설의 구조와 닿아 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신은경 「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 『아리랑』에 실린 「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117-143면), 곽상인 「손창섭의 「잊을 수 없는 과거」 연구」(『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67-91면), 강유진 「손창섭 단편 애정 세태소설 속 결혼 모티프와 인물 연구」(『우리문학연구』 76, 우리문학회, 2022, 147-170면) 등을 참고할 것.

3) 손창섭의 초기/후기 소설의 간극을 살피는 데 있어 「잉여인간」을 주요한 변곡점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초기 단편에 나타난 무기력한 인간형이 「잉여인간」에 이르러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건강한 인물로 갱신되었다고 평가한 조남현의 「손창섭 소설의 의미 매김」(송하춘 편, 『손창섭—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새미, 2003), 손창섭의 초기작과 달리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도드라지는 작품으로 「신의 희작」과 더불어 「잉여인간」을 지목한 김진기의 「반공의 내면화와 정체성의 구축」(『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초기작과 후기작 사이 존재하는 현실 인식의 변화를 「잉여인간」에 도입된 형식적 긍정성을 분석함으로써 논구한 이현석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부정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손창섭 초기소설의 주요 모티프를 '결혼 회피'로 규정하고 「잉여인간」 속 서만기라는 이상적 가장의 모습을 통해 초기/후기 소설의 간극을 해명한 박찬효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잉여인간」을 기점으로 삼아 그 이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의협'과 '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김주리의 「손창섭 소설 속 의협과 폭력」(『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잉여인간」이 재현하는 이상적 가부장의 모습을 손창섭이 지닌 국민국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열망과 연관해 설명함으로써 소설의 미학적 한계를 짚고 있는 유승환의 「「잉여인간」에서 배운다—1950년대 손창섭 단편소설의 정치적 무의식」(『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등을 참고할 것.

특히 인물의 형상화 방식에서 기존 손창섭 소설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잉여인간」에 관한 평가가 갈리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서만기로 대표되는 긍정적 인물의 형상화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정반대의 견해로 나타나는 것이다."[4] 「잉여인간」의 주인공 만기는 손창섭의 여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과는 달리 지극히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그려진다. "손창섭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기소설과 「잉여인간」 이후의 소설에는 분명한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5] 시각이 가능한 것도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다. 본고는 손창섭 소설의 시기 구분에 있어 「잉여인간」이 형식적·내용적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기존의 논의들을 수용하면서, 소설이 이상적 공동체로 형상화하는 '만기 치과 의원'과 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 서만기라는 인물을 면밀하게 고찰하려 한다. 손창섭 초기소설과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잉여인간」의 주제의식은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1950년대 전후에 발생한 공동체적 사유는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6]으며, 이후로도 '공동체' 혹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탐구는 손창섭의 소설이 놓친 적 없는 항구적 관심사였다.[7] 즉, 각기 다른 삶과 트라우마를 지닌 타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잉여인간」 이전 작품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의 재구성에 관한 소설적 상상력은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에 수용될

---

4) 김영미, 「'전후'를 벗어나서 바라본 1950년대 손창섭 단편소설—여성인물과 관계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2015 겨울호, 68면.

5) 이현석, 앞의 글, 418면.

6) 신은경,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사랑'의 공동체 연구—모리스 블랑쇼와 장 뤼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바탕으로」, 『인문사회21』 13-6, 인문사회21, 2022, 1586면. 신은경은 블랑쇼와 낭시의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적」 「사연기」 「포말의 의지」를 '죽음 공동체'로, 「잉여인간」 「애정의 진리」를 비대칭적 '사랑 공동체'로 분류하고 각각의 작품을 길지 않게 해명하고 있다.

7) 손창섭 소설의 전반적인 주제의식을 특히 '인간관계 회복'과 '공동체의 재구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김민수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가 있다. 김민수는 손창섭의 유학시설 독서체험 및 이후 형성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손창섭의 1960년대 장편소설이 공동체 재구성이라는 소설적 테마에 천착하였음을 논증한다.

타자 혹은 타자성에 대한 소설적 대응과 맞물려 있다. 본고의 2장이 초기 단편들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얼굴' 상징들을 타자성 개념으로 해명하고 그러한 타자성에 대한 소설적 수용 양상을 먼저 살피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지하듯 손창섭 초기소설 속 인물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불구이며 극도로 무기력하고 폐쇄적이기에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기생하며 삶을 이어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관계가 대체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는 까닭은 타자의 '얼굴'로 상징되는 타자성이 서로에게 있어 애초 재현 및 수용 가능한 무엇이 아닌 탓이다. 이때까지 손창섭의 소설적 상상력은 타자성을 사유하면서도, 한국전쟁의 참상이라는 현실 논리에 구속된 채, 공동체 구성을 위한 환대의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어지는 3장은 손창섭 초기 단편의 소설적 주체가 수행하지 못한 환대의 논리가 「잉여인간」에서 어떤 양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타자성이 「잉여인간」 속 만기를 중심으로 하는 환대의 공동체에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살피는 작업과 맞물린다. 만기 치과 의원은 타자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보존하는 윤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윤리성에 관한 소설적 상상력은 그러나 일반적인 현실 논리와 얼마간 거리를 두게 된다. 「잉여인간」이 서만기라는 인물을 과도하리만큼 이상적[8]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건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동체가 타자성을 수용 및 포섭하는 방식 자체가 현실 층위가 아닌 윤리적 사유의 층위에서만 관철될 수 있는 탓이기도 하다. "결혼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지녔기에 "가족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파행적 결말"[9]을 보여주던 손창섭 소설

8) 서만기라는 인물과 관련해 선민서는, 손창섭이 "서구적 교양인상을 모범적인 국민상으로 간주하는 도의 담론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인간」의 서만기는 도덕적인 전범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의 담론의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해 배치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497)고 추측한다.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도덕적인 서만기라는 캐릭터가 그만큼 작위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자세한 논의는 신민서의 「1950년대 도의 담론과 모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의 반발—손창섭 소설을 중심으로」(『한국어와문학』 208, 국어국문학회, 2024)를 참고할 것.

9)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153면.

의 초기 작업이 모종의 돌파구를 고심하는 과정에서 '결혼제도'나 '가족'이 아닌 '윤리적 공동체'를 상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상상력이 「잉여인간」의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간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본고가 전제하는 바이다. 이때 타자의 환대와 수용이라는 윤리적 실천을 수행하는 주체는 형식상 '만기'로 드러난다. 다만 소설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바, 타자를 전적으로 환대하는 윤리적 실천은, 결국 만기라는 '개인-주체'가 아닌, 만기와 만기의 아내, 은주, 인숙 그리고 봉우까지를 포함한 '공동체-주체'에 의하여 관철된다. 현실 논리에서 벗어난 윤리적 공동체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잉여인간」은 이상화된 인물 만기를 만기 치과 의원의 구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고가 언급한 '얼굴' '타자성' '환대' '에로스' 등은 물론 레비나스 철학의 개념들이다. 「잉여인간」을 해명하는 데 있어 '타자의 윤리학'으로 널리 알려진 레비나스의 논의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우선 소설의 변모 양상에 대하여 '휴머니즘의 발현'이라는 식의 다소 느슨한 설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10] "레비나스는 근대에서 비롯한 휴머니즘을 거부한다. 그것은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존재의 평등에 만족하는 삶, 즉 조용한 삶"[11]을 추구하는 근대적 휴머니즘이 구성하는 공동체는 제한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수준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레비나스의 철학을 경유한 본고의 논의는 「잉여인간」이 지닌 현재성을 해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라는 명칭은 손창섭 소설의 영광이자 구

10) 손창섭 소설이 한국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는 점에서도 그의 소설적 사유와 레비나스의 윤리 철학은 정합성을 보인다. 널리 알려진바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세계대전의 경험은 레비나스 철학의 원천이다. 레비나스는 프랑스군의 통역관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독일군 포로가 되었고, 비슷한 시기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에게 있어 전쟁과 서양철학은 타자를 동일한 체계와 질서 안에 폭력적으로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전체성을 내재한 동류였다. 전체성에 대항하는 사유의 과정에서 레비나스가 강조했던 개인의 '책임'과 '윤리'라는 명제는 공동체의 재구성 및 유지라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체적 상상력과 연동되어 있다. 이는 물론 손창섭 소설의 항구적 관심사였던 '공동체' 혹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탐구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11) 김도형, 「레비나스 철학의 사회철학적 함의—레비나스의 윤리와 정치」, 『대동철학』 50, 대동철학회, 2010, 122면.

속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의 단편은 전후(戰後)의 특정 시기를 배경으로 삼으나 타자와 공동체에 관한 사유가 어느 한 시기에 한정된 문제일 수는 없다. 타자를 향한 윤리적 책임을 제1원칙으로 삼는 레비나스의 철학이 현재까지도 수많은 논의와 재해석의 대상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손창섭 소설의 상상력을 윤리적 관점으로 살피는 작업은 그러므로 손창섭의 미학성을 현재와 연결하려는 문제설정의 성격을 가진다.

본고는 「잉여인간」 속 만기를, 손창섭 소설의 미학적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손창섭 소설의 무기력하고 폐쇄적 인물이 긍정적으로 지양되었다는 식으로 파악하는 이분법적 시각 사이에서, 「잉여인간」과 중심인물인 만기가 지닌 의의를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물론 「잉여인간」이 윤리적 상상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만기라는 인물의 관념성이나 여성 인물들에 대한 평면적인 인물 설정은 여전히 문제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잉여인간」은 서만기라는 이상적 인간형을 창조하고 그를 구심으로 삼음으로써 당대의 비참한 현실 논리에서 벗어나 '환대의 공동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상화된 서만기와 그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드러내는 소설적 결함들은, 1950년대 손창섭의 작품세계가 지닌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동체의 재구성'이라는 손창섭 소설의 주제의식을 극명히 드러내는 미학적 임계이기도 하다.

2. 초기 단편에 나타난 타자의 '얼굴'과 지연된 윤리

레비나스의 논의[12]에 따르면 타자와의 만남이란 "중개자도, 매가자도 없

12) 이하 '얼굴' '타자성' 등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저서 『전체성과 무한』(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그린비출판사, 2018)을 참조·요약한 것이다. 『전체성과 무한』에서 '무한'이란 합리적 개념이나 지식으로는 재현 및 환원이 불가능한 외재적 타자성을 의미한다. 반면 레비나스가 말하는 '전체성'은 '무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주체가 타자를 포섭하고 자기화하는 '동일성'의 논리와 같다. 근대적이며 합리적인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서양철학이 궁극적으로 전체성 혹은 동일성의 체계를 바탕으로 타자성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전체성과 무한』은 타자의 절대성과 외재적 자리, 즉 타자성을 복원하려는 윤리 철학의 기획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무섭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13]이다. 주체의 눈앞에 타자는 '얼굴'로 자기를 나타낸다. 타자의 얼굴은 일반적인 사물과는 다르게 통일된 혹은 일관된 전체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레비나스는 특히 '무한성'이라는 개념으로 타자의 얼굴을 설명하는데 이는 사물의 혹은 사물화된 '전체성'과 대비되는 타자의 특징이다. "얼굴은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현전한다. 이런 점에서 얼굴은 파악될 수 없다."[14] 주체는 타자의 얼굴을 결코 개념화하거나 대상화할 수 없기에 타자는 매번 낯선 방식으로 현현하게 된다. 가령 「공휴일」의 '도일'에게 문득 떠오른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인 까닭인지 이이가 어째 내 어머니일까?"(45)와 같은 의구심은 단순히 병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얼굴로서의 타자성이 지닌 근원적 성격에서 촉발된 것이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낳으셨수?"라는 소설 속 도일의 저 엉뚱한 질문이 향하는 건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전체성(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타자의 얼굴이다.

손창섭의 단편 「비 오는 날」(1953)의 주인공 '원구'가 만난 '동옥' 역시 "절대적으로 낯선 자로서 나를 응시하는 얼굴"[15]로 현현한다는 점에서 「공휴일」 속 도일의 어머니의 동일한 성격을 띤다. 여기에 더해 동옥의 얼굴은 외부적인 위협에 무능하게 노출되어 있는, 궁핍한 약자의 얼굴이기도 하다.[16]

---

13)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160면.
14) 레비나스, 앞의 책, 2018, 285면.
15) 같은 책, 318면.
16) 레비나스의 타자는 항시 궁핍하고 벌거벗은 자이다. 그에게 있어 타자란 자신의 생사여탈의 권리마저 주체에게 넘겨버린, 전적인 '약자'로서의 얼굴을 의미한다. 타자를 약자로 상정하는 레비나스의 윤리 철학에 있어 전복적인 면은 이후 논의를 통해 드러난다. 이처럼 궁핍한 자의 얼굴, 과부와 고아의 얼굴은 자기 취약성을 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오히려 주체에게 살인을 금하고 환대를 종용한다. 약자의 얼굴이란 주체에게 있어 감정이입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윤리적인 명령 자체이다. 이로서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역전되는데 이는 "얼굴이 나의 의무를 요구하고 나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얼굴 속에서 스스로를 현시하는 존재는 높이의 차원, 초월의 차원에서 내게 온다."(레비나스, 앞의 책, 2018, 320면) 무한한 외재성이자 약자로서의 얼굴은 주체보다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1) 그러자 문 안에 친 거적 귀퉁이가 들썩 하며, 백지에 먹으로 그린 초상화 같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살결이 유달리 희고, 눈썹이 남보다 검은 그 여인은 원구를 내다보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비 오는 날」, 78)

2) 창문 안에 드리운 거적을 캔버스 삼아 그림처럼 선명히 떠올라 있는 흰 얼굴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옥의 얼굴임에 틀림없었다. 어쩌자고 동옥은 비 뿌리는 창문에 붙어 서서 저렇게 짓궂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비 오는 날」, 79)

「비 오는 날」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된 원구가 동욱, 동옥 남매를 만나면서 겪는 사건과 심리를 그린다. 임시 수도에 머물며 셋은 하나같이 극단적인 궁핍에 내몰리게 되지만, 작은 리어카를 끌며 잡화상을 시작한 원구에 비해 더욱 사정이 나쁜 쪽은 동욱과 동옥이다. 동욱은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하였으나 현재는 삶의 의욕을 소진한 채 하루하루를 술로 버티는 중이다. 와중에 그는 동생 동옥이 그린 초상화 샘플을 챙겨 미군 부대 등을 전전하면서 초상화 주문을 대신 받아다주는 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 1)은 원구가 남매의 판잣집에서 동옥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리어카에서 잡화를 팔며 근근이 살아가는 원구는, 피난지에서 만난 친구 동욱의 궁핍한 생활상을 전해 듣고 형언하기 힘든 절망감을 느낀다. 원구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동욱을 찾았다가, 동욱의 여동생 동옥과 만나게 된다. 거기서 원구에 비친 것은 “백지에 먹으로 그린 초상화 같은 여인의 얼굴”이다. 2)는 원구가 동욱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도 재차 강조되는 건 “창문 안에 드리운 거적을 캔버스 삼아 그림처럼 선명히 떠올라 있는 흰 얼굴”이다. 어찌된 일인지 원구는 동옥의 저 얼굴을 마주한 후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가 연상되어 전신에 오한을 느”(79)끼게 된다. 그러한 타자의 낯설고 섬뜩한 얼굴 앞에서 원구는 도망치듯 돌아설 수밖에 없다.

「비 오는 날」이 그려낸 우울하고 절망적인 장면들 가운데 불쑥 나타나는 동옥의 백짓장 같은 얼굴은 소설을 읽는 이에게 유독 강렬한 인상을 남긴

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인의 얼굴에서 오는 힘은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 근거"[17]한다. 물론 이 힘은 주체에게로 향하는 윤리적 명령의 다른 말이다. 동옥의 얼굴은 원구로 하여금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18]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명령은 소설에서 "커다란 적선으로 생각하고 동옥과 결혼할 용기는 없는가"(86)라는 동옥의 오빠 동욱의 음성으로 구체화된다. 결혼해서 동옥을 구원해달라는 동욱의 잠꼬대 같은 말을 듣기 전, 원구가 구약성서의 대홍수와 노아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또한 "노려보듯이 천장을 바라보며 반듯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문득 말을 꺼낸 동욱의 태도에서, 동옥을 구원하라는 저 음성은 흡사 외면할 수 없는 계시처럼 원구의 감정을 뒤흔들어놓는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소설 속 원구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다. 그럼에도 타자의 얼굴은 원구의 "입장과 위치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가능성"[19]으로서의 절대적 명령이 된다.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 동욱·동옥 남매가 사라진 다음, 환상 속에서 원구가 듣게 되는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92)라는 꾸짖음은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명령에 제때 응답하지 못한, 윤리적 부채감을 상징한다.

「비 오는 날」에서 가난, 장애, 그리고 여성이라는 몇 겹의 취약성을 지닌 동옥의 얼굴은 레비나스적 맥락으로 해명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손창섭 소설의 '얼굴' 또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려진다. 가령 「생활적」(1954)이 연출하는 가장 강렬한 장면도 얼굴-타자성과 연관된다.

> 동주는 다가앉아 얼굴을 들여다보며 묻고 싶었던 걸 묻는다. "너 죽고 싶으냐?" 소녀는 금세 얼굴이 긴장되었다. 퀭한 눈으로 동주의 얼굴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순이는 필시 자기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동주는 생각했다. 좀더 분명한 음성으로 다시 물었다. "죽고 싶지?" 소녀는 약하기는 하나 날카롭게 '아악' 소리를 지르고 담요로 얼굴을 쌌다. 순이는 전신을 와들와들 떨

17)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36-137면.
18) 같은 책, 137면.
19) 같은 책, 136면.

> 기 시작했다. 흰자위 많은 동주의 눈이 담요 속에 감춰진 순이 얼굴을 원망스레 노려보고 있었다.(「생활적」, 99)

「생활적」 역시 한국전쟁의 피란지를 배경으로 한다. 피란지에서 만난 젊고 정력적인 일본 여성 '춘자'와 동거 중인 '동주'는, 전처의 아이 '순이'를 어쩔 수 없이 떠맡아 키우는 옆집 남자 '봉수'와 춘자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신이 걸레 조각처럼 되는 대로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는"(93) 상태로 삶에 대한 기대 없이 연명한다. 인용된 장면에서 동주는 폐결핵으로 인해 가망 없이 누워 있는 옆방의 순이 곁으로 "다가앉아 얼굴을 들여다보며 (…) 죽고 싶지?"하고 묻는다. 이에 순이는 "소리를 지르고 담요로 얼굴을" 감추며 물러선다. 이와 같은 동주의 가학적·위악적 행위는 읽는 이에게 섬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인용된 마지막 장면에서 오히려 동주가 "순이 얼굴을 원망스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은 어찌된 일인가. 일차적으로 동주의 원망스러운 저 눈길은 죽음(혹은 아버지 봉수의 방치로 인한 죽임)이 자명한 상황에서도 끝내 원초적 생명의 본능을 버리지 못하는 순이의 심리를 자신의 것과 겹쳐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저 원망과 분노가 발생하는 또다른 까닭은 동주라는 주체가 타자의 얼굴에 새겨진 '나를 구원하라'는 윤리적 명령을 받들 수 없는, 순이만큼이나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만 「비 오는 날」의 원구와 「생활적」의 동주가 타자의 얼굴에 내재된 윤리적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이유를 그저 '너만큼 내 처지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단순히 정의한다면, 원구의 윤리적 부채감이나 동주의 근원적 분노는 다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인간 존재는 '홀로 서기(hypostase)'[20]를 통하여 최

---

20) hypostase는 그리스어 hypostasis에서 비롯된 말로 '홀로 서기' 외에도 '자기 정립' 혹은 '실체' 등으로 번역된다. 여기서는 본고가 참조한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의 옮긴이 강영안의 번역을 따라 '홀로서기'를 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존재자의 자기 정립은 매번 존재의 '고독'과 연관된 작업으로서 드러나며, '홀로서기'-주체는 삶의 요소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유를 통하여 동일자의 주체성을 정립한다. '홀로 서기' 개념에 관해서는 강영안의 『레비나스의 얼굴—타인의 철학』(문학과지성사, 2005) 93-94면의 이하 내용 등을 참고할 것. "레비나스가 이 단계에서 말하는 주체는 존재의 익명성에서 초월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 유지 욕망을 실현하는 주체이다. (…) 레비나스

초의 주체성을 정립한다. 이제 그는 "사물에 접근하면서 (…) 동일자 속에서 나 자신을 유지한다."[21] '홀로 서기'로서의 주체는 익명성에서 벗어나 주변의 사물, 즉 바람과 땅, 흙과 햇살 등을 홀로 향유함으로써 자기 충족적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 혹은 사물의 향유를 통하여 주체성이 최초로 드러남에도 주체는 이내 불안에 휩싸인다. 왜냐하면 삶의 요소인 저 세계-사물들은 주체가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힘이기도 한 탓이다. 인간이 거주와 노동에 힘을 쏟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손창섭 소설의 원구나 동주의 경우, 향유와 노동 및 주거를 통한 자기 충족적 동일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삶의 요소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상황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듯 그러한 삶의 요소로서의 세계-사물에 대한 향유가 주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라면, 손창섭의 인물들은 삶의 향유는커녕 거주와 노동을 통한 삶의 지속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원구와 동주를 포함한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은 절대적 '외재성'으로서 얼굴—매번 즉각적인 윤리성을 주체에게 명령하는—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위악적인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는 애초 그들이 외재성으로 손을 뻗기 위한 전제로서의 내재성을 결여한 탓이다. 그런 존재들은 '홀로 서기'로서의 주체, 향유하는 주체로서 자기 정립이 불가하기에, 타자의 얼굴이란 외부로부터의 윤리적 명령이 아닌 그저 나와 유사하게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익명성으로 나타날 뿐이다. 원구가 느끼는 과한 죄책감, 동주의 위악적 태도와 갑작스러운 분노는 그들이 외재성으로서의 타자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을 방증한다.

「생활적」의 결말에서 결국 순이는 아버지 봉수의 방관과 방치로 인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동주의 반응을 소설은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의 홀로 서기로서의 주체는 존재의 익명성에 매몰되지 않고 존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 주체는 익명적인 존재의 속성에서 존재를 자신의 속성으로 만든다. 존재는 주체의 출현으로 인해 더 이상 이름과 얼굴 없는 존재,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의 소유가 된다."

21) 레비나스, 앞의 책, 2018, 285면.

> 그리고 잠시 고요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그는 왈칵 시체를 끌어안았다. 자기의 입술을 순이의 얼굴로 가져갔다. 인제는 순이는 순이가 아니다. 주검이었다. 동주는 주검에 키스를 보내는 것이었다. 자기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 있다고 동주는 의식했다. 살아 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래'라고 생각하며 동주는 주검의 얼굴 위에 또 한번 입술을 가져가는 것이었다.(「생활적」, 120)

"손에 거머쥘 수 없고 내가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래는 타자이고, 미래와의 관계는 곧 타자와의 관계"[22]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동주가 순이의 죽은 얼굴을 대면해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래'"로 '죽음'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다. 주체는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초월적 성격을 띤 미래의 시간을 현재와 연결할 가능성을 획득한다. 물론 이때의 타자란 '살인하지 말라'며 구원을 명하는 '살아 있는' 얼굴이기에, 동주에게 순이의 죽음은 미래라는 시간을 현재와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종말을 의미한다. 다만 여전히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순이에게 가학적이던 동주의 태도가 '뒤늦게' "주검에 키스를 보내는" 행위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이는 「비 오는 날」의 원구가 환상 속에서 '뒤늦게' 들었던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라는 꾸짖음을 상기시킨다. 타자의 얼굴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외재성—죽음이란 사건은 주체의 내재성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외재적이다—으로 드러나는 순간에서야 동주는 '뒤늦게' 입맞춤의 애도를 통해 윤리적 명령에 반응한다. 이는 즉각적인 윤리의 명령에 대한 주체의 지연된 혹은 실패한 수행이다.

「비 오는 날」의 뒤늦은 후회와 「생활적」에 나타난 실패한 응답과는 달리 「사연기」(1953)의 결말은 얼굴의 명령을 주체가 수용한 모양새를 띤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동식은 한동안 죽은 정숙의 얼굴을 비켜보며 앉아 있었다."(73) 이제 '동식'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정숙'의 두 아이를 맡아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그럼에도 동식은 곧 "고인이 남기고 간 두 어린 것의 슬픈 운명을 자기는 책임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이 같은 부채감은

22) 강영안, 앞의 책, 110면.

두 아이가 그의 자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다소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동식의 행위는 윤리적 명령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동식의 응답 역시 정숙의 얼굴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외재성으로 닫힌 후 뒤늦게 나타난다. 또한 「사연기」의 경우 정숙의 죽음 이후에 나타날 공동체의 구성 및 지속의 양상을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초기 단편들이 주로 보여주는 혈연 공동체에 관한 상상력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이후 살피게 될 「잉여인간」의 윤리적 환대와 얼마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비오는 날」「생화적」「사연기」 외 다른 초기 소설에서도 '얼굴'의 현현은 낯섦에 대한 주체의 거부 반응 혹은 불완전한 수용으로 귀결한다. 「혈서」(1955)는 가난과 장애 그리고 여성이라는 약자성을 가진 '창애'의 얼굴을 보여준다. 법대를 다니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달수'는 "어쩌다 창애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게 되는 경우, 마치 유령이나 귀신을 대한 것 같은 엉뚱한 착각을 일으키는"(147)데, 이처럼 '유령'이나 '귀신'과 유사한 타자성은 "손을 내밀어도 만져지지 않을 것 것만 같"다는 의구심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탓에 달수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을 창애의 얼굴로 가져간다. 잡히지 않으려니 하고 창애의 코를 쥐어"보기까지 하는 것이다. 「미해결의 장」(1955)에서 '지숙'은 '나'의 동생임에도 "언제나 양초처럼 희기만 한 얼굴"(163)로 낯설게 현현된다. "지숙의 얼굴에서 나는 일찍이 웃음을 본 일이 없"을 만큼 '나'와 지숙은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일 뿐이다. 「유실몽」(1956)에 나오는 '춘자'의 얼굴이 지닌 성격 또한 다르지 않다. '나'가 춘자와의 결합을 단념하고 떠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의 서술이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불현듯 창백한 춘자의 얼굴이 눈앞을 얼찐거렸다. 뒤이어 여자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숨죽여 우는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였다."(271) 얼굴의 윤리적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나'의 죄책감이 '울음소리'로 전환되는 장면이다. 이처럼 윤리적 명령에 대한 거부 혹은 지연된 반응으로 일관하던 손창섭의 상상력은 「잉여인간」에 이르러 타자성을 수용하는 '완벽한' 인물 서만기를 만들어낸다.

3. 『잉여인간』 속 환대의 공동체와 에로스적 욕망

손창섭 초기작의 관심은 가족 공동체에 집중되어 있다. 손창섭의 초기 단편들은 '윤리적 실천을 명령하는 얼굴의 현현'과 '윤리적인 호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체'라는 구도 설정을 통하여 특히 남녀 사이의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거듭 실패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제도와 혈연으로 형성된 가족은 손창섭의 소설에서 이상화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는다."[23] 이와 비교하면 「잉여인간」의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동체[24]는 혈연과 무관하다. 1950년대 단편에 나타나는 '가짜 가족'[25]이나 1969년부터 연재된 『삼부녀』의 '계약 가족'[26]의 형태조차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기 치과 의원은 가족 이데올로기 자체로부터 벗어나 존재하는 셈이다. 만기 치과 의원은 타자를 환대하는 윤리적 공간으로서, 이때 환대의 주체는 서만기이며, 채익준과 천봉

23) 정보람, 「196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부부』, 『삼부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8, 419면.

24) 신은경은 「잉여인간」의 공동체를 '사랑'이라는 욕망에 의해 구현되는 '선택적 공동체'로 규정한다. 이때 '선택적'이라는 뜻은 주체들이 각자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식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이는 공동체에 관한 블랑쇼적인 의미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짧게 인용한다. "선택적 공동체는 규정된 것이 아닌, '불규칙한 사랑'(상하 관계, 성매매, 불륜)의 방식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손창섭 소설에 발생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서열 관계', '신분적 비대칭', '불가능한 관계'로 제시된다. '선택적 공동체'는 정형적이지 않은 불규칙적 관계 즉, 사랑해서는 안 되는 관계 혹은 사랑이 어려운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인간의 비정상적인 삶의 구조를 생산했고, 사랑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선택 공동체'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비대칭적 관계성'을 통해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며 삶의 연속성을 지향한다."(신은경, 앞의 글, 2022, 1591면)

25) 손창섭 단편에 자주 등장하는 '가짜 가족'에 관한 논의는 정보람의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어문연구』 4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247면의 이하 내용 등을 참고할 것. "孫昌涉의 소설에서 '가짜 가족'은 자주 발견된다. 그 '가짜 가족'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6) 손창섭이 1969년부터 1년간 『주간여성』에 연재한 『삼부녀』는 '계약'에 의한 가족 구성에 관한 연구의 대상으로서 거듭 다루어져왔다. 이에 관한 논의는 김세준의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를 대상으로」(『인문연구』 75,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정보람의 앞의 글(2018) 등을 참고할 것.

우는 환대를 받는 타자의 위치에 놓인다. 만기/익준·봉우 간의 명확한 위계는 기존 손창섭 소설이 흔히 보여주던 관계의 설정 방식과 차이가 있다. 물론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전후 상황에서 치과의 "시설이 빈약하고 병원 건물이 초라한 까닭"(98)에 원장 만기의 형편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의롭지만 현실감각이 결여된 익준이나 아내의 경제력에 기생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봉우와 비교해 만기라는 인물은 공동체 구심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지닌다. 서만기는 세계를 향유할 줄 아는 인물이며 노동을 통하여 자기 삶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통제해내고 있다.

서만기는 충족적 자아를 정립하고 있는 인물이다. 손창섭 초기 소설의 인물들과는 달리 그는 '홀로 서기'로 정립된 자기 내재성을 바탕으로 절대적 외재성으로부터 출현하는 윤리적 명령을 인식하며 그것에 응할 수 있다. 주체에게 타자성은 약자의 얼굴로 현현하며, 고아, 과부, 빈자의 얼굴과의 대면이란 윤리적 명령을 인식·수용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는 레비나스의 독특한 타자 개념에서 비롯된 관계 설정이다. 그에게 있어 "타자는 나의 공감과 연민,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타자가 되고, 네가 나에게 타자가 되어주는 그와 같은 상호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27]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는 주체-타자 사이 상호 대칭적 관계를 통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레비나스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타자가 오히려 주인 되는 윤리적 상황을 「잉여인간」 속 만기 치과 의원을 통하여 살펴보자.

> 만기 치과 의원에는 원장인 서만기 씨와 간호원 홍인숙 양 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 둘이 있다. 그 한 사람은 비분강개파 채익준 씨요, 다른 한 사람은 실의의 인간 천봉우 씨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서만기 원장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그들은 도리어 원장보다도 먼저 나와서 대합실에 자리잡고 신문을 읽고 있는 날도 있었다. 더구나 채익준은 간호원보다도 일찍 나오는 수가 많았다 (…) 한사코 말려도 익준은 굳이 양복저고리를 벗어붙이고 소매까지 걷고 나서서 거들어 주기 때문이다. 대합실과 진찰실을 합쳐도 겨우 다섯 평이나 될까

27) 강영안, 앞의 책, 111면.

> 말까 한 방이지만 익준은 손수 마룻바닥에 물을 뿌리고 방구석이나 테이블 밑까지도 말끔히 쓸어내는 것이다. 무슨 일에나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을 서는 그의 성품은 이런 데도 잘 나타났다. 청소가 끝나면 익준은 작달막한 키에 가로 펴진 그 둥실한 몸집을 대합실 의자에 내던지 듯 털썩 걸터앉아서 신문을 본다. 그러노라면 원장과 천봉우가 대개 전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잉여인간」, 88-89)

만기 치과 의원의 인물들은 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서도 동일한 목표나 일관된 정서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거주하면서도 서로 다른 행위와 감정을 드러낸다. 채익준은 대가 없이 홍인숙의 청소를 돕고, 뒤늦게 병원에 들어서는 서만기(원장)와 천봉우은 익준의 노동에 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채익준은 현실 정치의 부조리함에 수시로 분노하지만 만기와 인숙은 그러한 익준의 분노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지 않으며, 아예 봉우는 현실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이처럼 「잉여인간」의 서두가 형상화하는 만기 치과 의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레비나스적 의미를 지닌 공동체의 성격을 짐작해볼 수 있다. 만기 치과 의원 안에서 타자를 환대하는 주체로서 지목되는 인물은 분명 만기이지만, 그는 치과를 수시로 침범하는 봉우와 익준을 향하여 아무런 요구도, 지시도 하지 않는 위치에 존재한다. 사회를 향한 익준의 분노는 익준의 것이며,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 또한 봉우의 개성으로 끝내 남겨진다. "만기와 익준이와 봉우는 중학교 시절에 비교적 가깝게 지낸 사이지만 가정 환경이나 취미나 성격이나 성장해서의 인생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다."(97) 간호사 인숙을 포함해 이처럼 서로 이질적인 타자들이 서로의 타자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만기 치과 의원에 모여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타자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타자는 나의 인식의 수준에서 동일화의 작용에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는 그를 나의 의도에 복속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힘의 행사에 저항한다."[28] 윤리적 공동체 내부에서 환대의 주체와 타자의 위계는 역전되며 타자들의 타자성은 보존·유지된다.

---

28) 박준상, 「이름 없는 공동체-레비나스와 블랑쇼에 대해」, 『철학과 현상학 연구』 18, 한국현상학회, 2001, 99면.

레비나스적인 공동체의 개념에서 서로 얼굴(타자성)을 마주하고 있는 존재들은 “무관심한 즉자적 관계가 아니며,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두 항 사이의 상호적 관계도 아니다.”[29] 이와 대비되는 것이 “동지들의 집단성”인데, 그러한 집단성은 “나를 집단적 표상 속에, 공동의 이상 또는 공동의 활동 속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나를 타자와 동일시하려 한다. (…) ‘우리’를 내세우는 집단성은 타자를 자기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자로 여긴다.”[30] 즉, 레비나스 철학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란 각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나 이상을 가지지 않은 채 각 서로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장소인 것이다. 그 안에서 각 존재들은 그저 ‘곁’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항상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이다. 이처럼 조건 없는 환대, 즉 무한한 타자성이 전적으로 수용되는 사건으로서의 환대는 전적으로 주체의 윤리성에 근거한다. “환대로서의 주체성 속에서 무한의 관념은 완수된다.”[31]

「잉여인간」의 공동체가 지닌 환대와 책임의 윤리는 갑작스러운 익준 아내의 죽음을 통해 결정적으로 환기된다. 익준이 공사판 인부로 나가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목숨을 잃자, 만기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장례식에 쓸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 친구가 부재한 가운데서도 친구 아내의 장례를 치르려는 만기의 행동은,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달려와 제 어머니의 죽음을 알린 익준 아들의, 저 ‘눈물 자국’ 선명한 얼굴에 대한 윤리적 반응이다. 만기는 소년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재산에 빚까지 더하여 시신을 수습한다. 문제는 돈을 빌린 대상이 만기에게 집요한 추파를 던지던 봉우 처라는 사실이다. 만기 치과 의원이 전적으로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만기를 구심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봉우 처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공동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에로스적 욕망을 자극하는 인물인 만기는, 역설적으로 일부일처의 전통적 가치관을 저버리지 않은 채, 그러한 에로스적 욕망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한에서만 자기 윤리성과 매력을 유지하게

29) 레비나스, 앞의 책, 2003, 160면.
30) 같은 책, 160-161면.
31) 레비나스, 앞의 책, 2018, 16면.

된다. 아래에도 서술되겠지만, 봉우 처 입장에서 결국 자신에게 손을 벌린 만기는 불륜 관계의 여지를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익준 아내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건은 만기 치과 의원이 지닌 윤리적 성격과 함께 공동체 내의 에로스적 관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환대란 절대적 외재성인 얼굴과 마주한 주체가 타자를 자기 공간 안으로 기꺼이 맞이하는 윤리적 실천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대는 레비나스의 논의 안에서 곧 사랑과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잉여인간」 속에는 환대의 윤리가 관철되는 '만기-익준-봉우'라는 관계 외에도, 서만기를 중심으로 만기의 아내, 처제 은주, 봉우의 처, 그리고 만기와 일하는 간호사인 홍인숙 등의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애정 관계가 존재한다. 물론 만기라는 인물이 「잉여인간」의 모든 애정 관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봉우와 봉우 처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활동 의욕과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하다시피 한 봉우는, 아내의 부양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경제 활동이 비범한 봉우 처는 무슨 짓을 하며 나가 돌아다녀도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어쨌든 봉우가 편리한 남편이었"(95-96)기에 결혼생활은 형식상 유지된다. 아내와 온전히 결합하지 못하는 봉우의 마음은 이미 홍인숙에게 향하여 있고, 원장 서만기만을 바라보는 인숙은 봉우에 감정에 대해 거부로 일관한다. "봉우는 처량한 얼굴로 발길을 돌이"(117)킬 수밖에 없다. 이처럼 봉우를 중심으로 관계도를 그려보면 「잉여인간」에 나타난 애정의 양상은 손창섭 이전 소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반면 '완벽한' 서만기라는 인물로 인하여 「잉여인간」은 편향된 에로스의 구도를 가진다. 이처럼 만기에게 집중된 에로스적 욕망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조로서 드러난다.

>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함부로 부딪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성의로써 차근차근 자기의 길을 뚫고 나간 사람이었다. 아무리 놀라운 일에 부딪치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대해서도 도리어 반감을 느낄 만큼 그는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것은 본시 천성의 탓이라고도 하겠지만 한편 그의 풍부한 교양의 힘이 뒷받침해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문벌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화초 가꾸듯 정성어린 어른들의 손에서 구김살 없이 곧게 자라난 만기

는 예의범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을 뿐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을 비롯해서 무용, 스포츠, 영화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해와 고급한 감상안을 갖추고 있었다. 크레졸 냄새만을 인생의 유일한 권위로 믿고 있는 그런 부류의 의사와는 달랐다. 게다가 만기는 서양 사람처럼 후리후리한 키와 알맞은 몸집에 귀공자다운 해사한 면모를 빛내고 있었다. 또한 넓고 반듯한 이마와 맑고 잔잔한 눈은 그의 총명성과 기품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누구를 대해서나 입을 열 때는 기사(基士)가 바둑돌을 적소에 골라 놓듯이 정확하고 기품 있는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히 골라 썼다.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와 침착한 언동으로 남에게 친절히 대할 것을 잊지 않았다. 좋은 의미에서 그는 영국풍의 신사였다. 자연 많은 사람 틈에 섞이면 군계일학 격으로 그의 품격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그는 한편 같은 치과의사들 가운데서도 기술이 출중한 편이었다.(97-98)

흡사 영웅소설 형식의 패러디로 보일 만큼 서만기에 관한 서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잉여인간」 이전과 이후의 소설을 모두 살펴보아도 만기와 같이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상화된 인물이 소설을 이끌어나간 경우는 없다. 이런 사정 탓에 소설 속 에로스적 관계의 구심 역시 만기라는 인물이 홀로 떠맡는다. 그를 욕망하는 여성은 넷으로, 우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만기의 아내가 있고, 처제인 은주와 간호사 인숙마저 아무런 조건 없이 만기를 사랑한다. 세 여성의 애정과 헌신은 소설 곳곳을 통하여 서술된다.

1) 10년 가까이나 가난한 살림에 들볶이면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써 남편을 섬겼고 심혈을 쏟아 어린것들을 보살펴오는 아내의 쪼들린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때 만기는 꿈에라도 딴생각을 품어볼 수가 없었다.(101)

2) 은주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혼자 궁리한 끝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는 길로 자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해버렸다. 그러고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셋방을 얻어 나가 자립 생활을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형부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였다.(122)

3) “선생님 제게 50만 환이 있어요. 그걸 선생님께 드리겠어요. 그리구 오빠에게 부탁해서 30만 환은 어디서 싼 이자루 빌려 오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병원을 내세요!”
말을 마치자 인숙의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쏟아졌다. 인숙은 그것을

> 씻을 생각도 않고 젖은 눈으로 열심히 만기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조금이라도 만기가 움직이기만 하면 인숙은 쓰러지듯 그대로 만기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매달릴 것 같았다.(134)

1)은 만기 아내의 변치 않는 마음을 2)는 만기의 처제인 은주의 전적인 희생을 보여준다. 3)은 아무 대가 없이 만기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홍인숙의 언행이다. 세 여성의 한결 같은 사랑은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아내와 은주, 인숙의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여 만기는 생업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며 치과 건물을 새로 알아볼 기회를 얻는다. 특히 간호사 홍인숙의 조건 없는 증여는 「잉여인간」에서 가장 희망적인 장면을 연출해낸다.

이와 같은 만기의 아내와 은주 그리고 인숙의 애정은 레비나스적인 의미와 조응하는 행위로서의 에로스[32], 즉 "그 사실 자체로 타자성을 마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타자성을 보존"[33]하는 에로스로 드러난다. "우리는 이 타자성을 절대적으로 근원적인 관계인 에로스에서"[34] 발견·보전하게 되기에 에로스는 환대와 마찬가지로 윤리성을 띠게 된다. 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에로스를 인간이 지닌 온전한 합일의 욕망으로 파악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는, 주체/타자의 이원적 대립을 전제하는 동시에 주체의 입장에서 타자를 충족의 대상으로서 동일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레비나스는 그러한 사랑에 관한 일반적 욕구를 점령이나 지배로 간주한다. 동일자가 추구하는 점령과 지배가 타자성을 말살하려는 욕구라면 에로스는 서로의 타자성을 간직하려는 윤리적 성격을 띤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혼자 궁리한 끝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는 길로 자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취직"한 은주와 애초부터 만기의 치과 개

32)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의 4부 '얼굴 너머'를 통해, 주체의 유한성(죽음)을 초월하기 위한 지평으로서 '에로스'와 '번식성'을 논의한다. 인간 존재는 자식을 남기는 것으로 '존재의 다원성'을 성취하며 이는 당연히 에로스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레비나스에게 있어 에로스는 번식성과 연관되어 있기에 언제나 '둘'의 관계, 바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전제한다. 여기서는 에로스 개념을 그것이 지닌 윤리적 형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에로스의 욕망을 경유해 '증여'라는 윤리적 실천이 수행됨을 우선 살핀다.

33) 레비나스, 앞의 책, 1996, 104면.

34) 같은 책, 107면.

업을 돕기 위해 꾸준히 급료를 모아온 인숙의 행위는 한때의 철없는 행동이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닐 것이다. 이들 여성은 에로스적 욕망은 기혼남성 만기를 향하여 있지만 아내와 가정을 지키려는 만기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이처럼 만기를 향한 욕망의 양상에 있어서 특히 은주와 인숙의 '무해한 희생'은, 만기라는 인물형에 의해 지지되는 일부일처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위의 헌신적인 세 여성들에 비해 봉우 처가 가진 욕망은 단순하고 세속적이다. 봉우 처의 욕망은 특히 은주와 인숙의 윤리적 에로스와 달리 결혼과 가족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을 겨냥한다. 만기가 봉우 처와의 접촉을 줄곧 피하다가 다시 얽히게 되는 건 익준의 아내가 병으로 급사하는 상황에서이다. 만기는 익준의 행방이 모호한 가운데 익준 아내의 장례 준비를 도맡고 봉우 처로부터 비용까지 융통한다. 봉우의 처가 원하는 것은 만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사건 이후로 장례비용을 빌린 탓에 만기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똑같이 기혼 남성을 연모하는 은주나 인숙과 달리 봉우의 처를 윤리성과 연관된 에로스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당위는 무엇일까? 봉우 처가 만기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분명 대가를 전제한다. "거의 아양에 가까운 교태"(136)를 보이며 봉우 처는 원금 이외의 "적당한 이자"를 언급한다. (물론 이 이자는 돈이 아닌 불륜 관계의 은유다.) 환대의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증여'가 응당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건네는 형식이라는 점을 상기해보자. "레비나스는 이러한 증여를 완전히 일방적인 책임,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증여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레비나스의 주체는 항상 타자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고 항상 타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35]

앞서 논의한 것처럼 만기 치과 의원이 공동체적 윤리를 관철하는 과정은 익준 아내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며 이때 윤

35) 나카이마 겐, 박양순 옮김, 『사고의 용어사전』, 북바이북, 2009, 339면.

리적 책임을 떠맡는 것은 장례 절차를 주도하는 만기이다. 하지만 만기 치과 의원 내부에서 만기를 향한 에로스적 욕망과 윤리적 증여가 등가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저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윤리적 주체는 만기라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 공동체가 실천의 주체로서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만기의 아내, 은주, 인숙 등이 자신들의 에로스적 욕망을 윤리적 책임으로 전환해내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 인물들의 에로스적 욕망을 경유한 저 증여들은 레비나스적인 윤리성의 온전히 겹쳐 있지는 않다. 레비나스적 에로스는 근본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이며 또한 '번식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만기 한 명을 향하여 있는 네 여성의 욕망은, 일방적인 선망과 동경—레비나스의 윤리가 배척한 타자에 대한 주체의 감정이입이나 동정심과 유사한—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에로스의 본래적 의미에 대하여 얼마간 도착(倒錯)되어 있다. 애초 우리는 은주와 인숙이 기혼남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당대의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두 여성이 지닌 점령과 지배의 욕구가 단순히 억눌려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만기의 아내, 은주, 인숙이 윤리적 증여의 형식을 관철함으로써 만기 치과 의원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해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봉우 처가 불륜을 전제하고 만기에게 건넨 5만 환과 인숙이 윤리적 책임으로서 만기에게 증여한 50만 환의 차이는 어떤 의미로 실제 돈의 차이만큼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얼굴 없는 주체로서의 만기

본고의 논의는 '「잉여인간」의 만기라는 인물이 그토록 이상적으로 제시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잉여인간」의 모든 윤리적 행위와 관계는 손창섭이 창조한 인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인격인 서만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만기는 이전 손창섭의 주동 인물과는 달리 삶의 향유를 통해 자기 충족적 자아를 획득한 주체로서 타자의 얼굴이라는 절대적 외재성을 인식·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미학적 완

성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오직 만기만이 윤리적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설정된 탓이다. 소설의 서사 안에서 그는 빈틈없이 우월한 주체이며, 타자로서는 결코 현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벽하게 윤리적·이상적 형상인 만기만으로는 공동체의 무조건적인 환대가 관철될 수 없었다. 익준 아내의 죽음과 애도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바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또 다른 윤리적 주체로서, 에로스적 욕망을 지닌 여성 인물들의 존재와 역할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주체-타자의 마주봄을 상호 평등한 관계로 파악하지 않지만, 이는 타자를 환대하는 주체의 자리가 언제나 낮게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 존재는 '서로에 대해' 무한한 외재성으로 존재하고, '서로에 대해' 약자의 얼굴로 현현하며, 각자의 현재 속에서 매순간 '서로에 대해' 윤리적 명령의 수행자가 자가 된다. 하지만 서만기는 우월한 인격을 지닌 자로서, 윤리성을 수행하기 위한 낮은(동시에 윤리적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타자의 얼굴이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주체는 자기의 경제적·인격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설의 서사가 만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가 실천하는 환대는 그저 우월한 자기 역량에 바탕을 둔 시혜적 행위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만기라는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지닌 문제점은 손창섭 소설이 지닌 상상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막 근대로 진입한 사유 자체가 내재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공동체 내 각각의 존재가 서로의 타자성을 인식·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윤리적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저 레비나의적 메커니즘은 고정불변의 '중심'을 전제하지 않는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 즉, 주체라는 '중심'을 일종의 '빈자리'로 놓아두는 상상력, 즉 주체와 타자의 자리가 '서로에 대해' 교환·교체 가능한 무엇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상상력은, 강력한 권위를 지닌 "국민국가에 대한 기대와 배반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36] 1950년대의 손창섭 소설의 문제의식과 동떨어진 것이기도 했다. 50년대를 살던 손창섭에게 있

36) 유승환, 「손창섭의 4·19와 5·16」, 『구보학보』 32, 구보학회, 2022, 280면.

어 이상적 공동체를 그려보는 일은 만기라는 '환상'을 중심으로 상정하지 않고서는 구체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중적인 멜로드라마와 키치가 '진정한 예술'보다는 훨씬 더 환상에 가깝다"[37]는 측면에서 보자면, 만기라는 캐릭터는 현실 논리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오히려 가장 적합한 인물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잉여인간」의 만기 치과 의원과 서만기는, 공동체의 회복과 재구성에 관한 손창섭의 주제의식과 상상력이 가장 멀리 나아간 자리에 존재하기에, 소설의 형식을 겨우 담보하는 미학적 임계의 성격을 지닌다. 타자를 향한 조건 없는 환대, 타자의 타자성을 훼손하지 않는 에로스, 그리고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증여 등을 소설로 구현하기 위한 형식상의 구심이자 필연성으로서, 구체적·현실적 얼굴로는 결코 현현하지 않는, '서만기'라는 판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37) Dany Nobus 편, 문심정연 역,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문학과지성사, 2013, 256면.

▮ 참고문헌

1. 원전자료
손창섭, 『손창섭 단편 전집 1』, 가람기획, 2005.
_____, 『손창섭 단편 전집 2』, 가람기획, 2005.

2. 연구논저
강영안 『레비나스의 얼굴—타인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강유진, 「손창섭 단편 애정 세태소설 속 결혼 모티프와 인물 연구」, 『우리문학연구』 76, 우리문학회, 2022.
곽상인, 「손창섭의 「잊을 수 없는 과거」 연구」,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김도형, 「레비나스 철학의 사회철학적 함의—레비나스의 윤리와 정치」, 『대동철학』 50, 대동철학회, 2010.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김민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김세준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를 대상으로」,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김영미, 「'전후'를 벗어나서 바라본 1950년대 손창섭 단편소설—여성인물과 관계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2015 겨울호.
김주리, 「손창섭 소설 속 의협과 폭력」,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김진기, 「반공의 내면화와 정체성의 구축」,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나카야마 겐, 박양순 역, 『사고의 용어사전』, 북바이북, 2009.
대니 노부스 편, 문심정연 역,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문학과지성사, 2013.
박준상, 「이름 없는 공동체—레비나스와 블랑쇼에 대해」, 『철학과 현상학 연구』 18, 한국현상학회, 2001.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방민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신민서, 「1950년대 도의 담론과 모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의 반발—손창섭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문학』 208, 국어국문학회, 2024.
신은경, 「1950년대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죽음'과 '사랑'의 공동체 연구—모리스 블랑쇼와 장 뤼 낭시의 공동체 사유를 바탕으로」, 『인문사회21』 13-6, 인문사회21, 2022.
_____, 「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아리랑』에 실린 「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에마뉘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_____,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출판사, 2018.
_____,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유승환, 「「잉여인간」에서 배운다—1950년대 손창섭 단편소설의 정치적 무의식」,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유승환, 「손창섭의 4·19와 5·16」, 『구보학보』 32, 구보학회, 2022.
이현석, 「손창섭 소설에 나타나는 부정성의 의미 변화에 관하여」,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정보람,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 『어문연구』 4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_____, 「196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부부』, 『삼부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정철훈, 「두번 실종된 손창섭」, 『창작과비평』 2009 여름호.
조남현, 「손창섭 소설의 의미 매김」, 『손창섭—모멸과 연민의 이중주』, 송하춘 편, 새미, 2003.

【Abstract】

The Otherness of Son Chang-sup's novel and the Ethical Community of The Extra Mortals

Kim, Sang-hyuk*

Son Chang-seop's novel The Extra Mortals is an important work that divides the world of his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 ethical community of The Extra Mortals and its central figure, 'Seo Man-gi.' Son Chang-seop has never lost sight of the novelistic theme of 'community reconstruction.' And the imagination of 'community reconstruction' is naturally related to the issue of how to deal with and express the other or otherness through the novel.

In Chapter 2, this paper explains the 'face' symbols that frequently appear in his novels as the concept of otherness. Chapter 3 of the paper discusses how the community of hospitality in The Extra Mortals welcomes otherness. 'Face', 'otherness' and 'hospitality' are concepts from Levinas' philosophy, of cours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s and significance of Son Chang-seop's novelistic imagination by discussing the imagination of Son Chang-seop through Levinas' philosophical concepts.

Keywords: Son Chang-sup, Levinas, hospitality, otherness, ethical community

접수일: 2025.03.28. || 심사일: 2025.05.14. || 게재확정일: 2025.05.21.

* Sejong Cyber Univ.